



현진님의
산방한담

크게 부족해야 크게 행복하다

어제 오후에는 마을 산책을 나갔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인부들을 만났다. 동네의 하천을 정비하는 일이었는데 일직으로 보이는 일꾼들이 무더위 속에서 연신 땀을 닦으며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떠올려 보았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힘들게 몸을 움직여 노동하지만 결코 가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해인사에 살 때 노스님이 젊은 우리들에게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다, 명경(明鏡) 같은 장판 위에 살면서 무엇이 부족하여 공부 안하냐?”고 혼내던 시절도 있었다. 내가 아무리 발일하고 김매는 선농(禪農)을 살고 기도하고 예불하는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땀 흘리는 저 사람들에게 비하라 싶어서 어제는 그 일이 명상의 실마리가 되었다. 무엇이든 부족하고 간절해지면 어떤 일이든 열심히 살게 마련이다. 풍족하게 사는 삶은 스스로 나태해지고 주어진 조건의 소중함을 잊기 쉬운 까닭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도 공부이며 명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것을 다 사 먹게 되면, 그것이 재미가 별로 없다. 예를 들어 과자를 잔뜩 사다 놓고 먹게 되면 그게 영 맛이 없고 먹는 즐거움도 없어진다. 왜 그럴까? 그것은 부족함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바뀌서 생각해 보라. 먹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조금 참아보고, 정 먹고 싶을 때 아주 어렵게, 그것도 부족하다 싶을 만큼 조금만 사서 한 입 베어 먹어보면 그 맛은 잔뜩 사다놓고 먹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된다. 그게 행복감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불편과 부족함에서 오는 즐거움을 알아야 될 불행하다. 한동안 어떤 물건이 없어서 불편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꼭 필요한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그 때 느끼는 행복감은 몇 배로 크게 다가온다. 그래서 불편함과 부족함을 즐기며 살라고 말하고 싶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무턱대고 구입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요즘 내가 정리한 행복 공식은 ‘크게 부족해야 크게 행복하다’는 것이다. 청주 마야사 주지

50년 숙원 전통문화체험관 준공 지상2층 지하2층 ... 727평 규모

중첩 규모로 50여 년간 불편을 감내해왔던 서울 봉은사가 오랜 숙원을 풀고 전통사찰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 첫 번째 불사를 이뤄냈다. 지하2층, 지상2층 규모로 전통문화체험관 1관과 2관을 준공해 선을 보았다.

지난 25일 열린 준공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혜계원장 무상스님, 재무부장 유승스님, 사회부장 정문스님 등 종단 지도부와 중앙종회의원 호산스님, 성화스님 등이 참석해 불사의 의미를 되짚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중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신원희 강남구청장, 전현희·이은재·이종구 국회의원 등도 이날 봉은사를 찾아 신도들과 함께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을 축하했다.

이날 개관한 전통문화체험관 1, 2관은 2016년 6월 착공 이후 1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연면적 2402.86㎡(727평)에 공양간, 사무실, 회의실, 강의실, 숙소 등을 갖췄다. 각종 규모로 인해 불사를 하지 못해 가건물을 지어 스님들의 요사채로 사용하던 공간에 지어졌다. 가건물을 철거하고 전통양식의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소나무숲과 어우러진 전통사찰의 면모로 일신했다. 이와 함께 일주문 앞에 있던 응향각 등도 옛 모습을 되찾았다.



이경민 기자의
현장에서
kylee@ibulgyo.com

지난 20일 미국 라크마 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동화사 염불암 ‘지장시왕도가 3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박물관 관계자들이 불화를 돌려주기 위해 조계종을 직접 찾은 것. 1998년 누군가에 의해 도난돼 어디로 헤맸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던 염불암 지장시왕도는 다음날 동화사 품에 안겼다.

얼마 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공동 수사를 벌여 62년 만에 되찾은 ‘문정왕후 어보’가 세간의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문정왕후 어보와 마찬가지로 반환식에서 기자들의 관심은 ‘얼마 만에 되찾은 문화재인가’에 쏠렸다. 돌아온 지장시왕도가 국보나 보물이나를 두고 ‘급’부터 먼저 따지기도 했다. 반환이 어떻게 진행됐는



지난 25일 서울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식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봉은사 대웅전에서 부처님 전에 삼배를 하고 있는 모습.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봉은사는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합법적인 불사가 불가능했다. 그동안 전각과 요사 중 일부는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사용돼왔고, 가건물에서 스님들이 생활하는 불편을 감내해왔다. 전통문화체험관은 40년 만에 진행된 첫 합법적 불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주지 원명스님은 준공식에서 “봉은사는 도시공원 지정 이후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받아 그 기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오늘 준공한 전통문화체험관은 신도들에게는 신생활공간을, 시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외국인들에게는 품격 있는 사찰체험 프로그램

등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그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더운 날씨에 행사장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 테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치사를 가름한다”며 연단에서 내려와 불자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이날 봉은사는 새 범종각과 영빈관을 포함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대적불사 구상도 밝혔다. 원명스님은 “지상주차장을 공원화하고 지하에 대형공간을 확보해 3000명의 대중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는 대법당과 주차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봉영 기자

총본산성역화 불사 동참 감사드립니다

한국불교종흥을 위한 조계종총본산 성역화불사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모연금은 조계종 총무원 일대를 장엄하는 어법한 불사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기금 모연 명단

(2017년 7월12일~2017년 7월25일)

□기금 : △서울 영화사(주지 평중스님) 3000만원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효광스님) 2000만원 △강화 보문사(주지 정문스님) 2000만원 △양양 낙산사 홍련암(회주 정념스님) 300만원 △전단향 10만원 △김봉옥 10만원 △박수철 10만원 △서울 감로사(주지 현수스님) 5만원 △전현우 5만원 △오병영 2만원 △나향란 2만원 △박선숙 2만원 △김연우 1만원 △이순자 5000원 △이미숙 2000원(총 7347만7000원)

※ 모연 후 전화(02-730-6690)를 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성역화불사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통일 로드맵 필요하다”

총무원장 스님 통일부장관 ‘한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의 예방을 받고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통일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24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명균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뀌면서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며 “이에 반해 종단은 공존, 상생, 합심이라는 통일 3대 원칙을 갖고 기준에 맞춰 일관되게 활동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이런 원칙들이 정부 입장이 바뀔 때마다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새 정부가 들어서도 바뀌지 않는 뚜렷한 대북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현 정부는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을 만드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통일정책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막혀있는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불교계의 도움을 거듭 요청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1만km 날아온 성보 뒤 숨은 일꾼들

냐에 대한 질문은 수많은 오갔지만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공급하지 않은 듯했다.

변변한 기기 하나 없던 30년 전, 종단은 도난 신고를 받자마자 염불암으로 내려가 사진을 찍고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 관련 증언도 모았다. 1999년에는 그 기록들을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 실었다.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은 2014년이 었다. 도난백서에 등록된 염불암 지장시왕도가 라크마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종단은 도난 근거를 입증하는 서류를 즉각 작성해 관련 서한을 미국으로 보냈다. 일일이 번역을 하고, 번거로운 수 있는 행정절차도 수 차례 밟았다. 지난해에는 1만km를 날아가 박물관 관계자들과도 직접 만났다.

현신은 결과로 나타났다. 라크마 박물관은 지난해 지장시왕도를 원소장처인 염불암에 돌려주기로 결정하면서, 반한 이유로 ‘신의’와 ‘신뢰’를 언급했다. 한미 양국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한 공조 수사가 아닌, 조계종과 미국 사립 박물관이 민간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이뤄낸 성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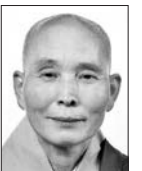
지금도 종단은 누군가에게 도난 돼 어디서 수난 당하고 있을지 모를 성보를 찾느라 물 밑에서 열심히 다. 불자들만이라도 이들의 수고스러움을 알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성스러운 보물을 단지 ‘몇 등급’ ‘얼마짜리’ ‘옛 물건’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데 함께 해주면 더할 나위 없겠다.

본·말사 주지 인사

(7월19일 중무회의)



요명스님
서울 자운정사



경봉스님
용인 범룡사



현원스님
광주 망월사



낙운스님
홍성 내원사



석인스님
합천 연호사



지원스님
부산 옥전암



덕경스님
울산 백련사



종선스님
울산 청룡암



대주스님
곡성 천태암



덕명스님
순천 향림사



지원스님
신안 단암사



지오스님
제주 대각사



2018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한국불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사찰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기본 요건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지정요건)

-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부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선정절차 안내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근거
1차 서류심사	운영사찰 지정 관련 기본요건 충족 확인	제출서류
2차 면접심사	대표자(주지스님)의 템플스테이 운영계획 청취	면접심사 평가표
3차 현장심사	사찰의 참가자 수용태세 확인	현장심사 평가표

●서류제출 안내

→제출기간 : 2017년 7월 24일(월) ~ 8월 17일(목) 까지

→제출서류 : ① 2018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붙임’자료 포함)
② 서류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www.kbuddhism.com

→제출방법 : 원본 및 파일 제출

① 원본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② 파일제출 : juk@templestay.com으로 제출

→제 출 처 : 03145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지문규

→서류심사 결과발표 : 공문을 통해 개별 안내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사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서 내 첨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문 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지문규, 02)2031-2034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수암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